

불성 있다고 다 부처 아니다 깨달아야 부처다

8월의 어느 날, 작열하는 피약발이 대지를 달군다. 그 열기는 대지가 품은 한방울의 수분마저도 뿌옇게 토해내게 할 만큼 뜨겁다.

서울에서 남양주 봉선사로 가는 길, 의정부를 지나 축석고개를 넘었다.

축석령(祝石嶺). 조선시대 호심 깊은 아들이 아버지를 치료하려 산삼을 구하려 나섰다. 밤은 깊고 길까지 잃은 아들은 었던 데 덮친 격으로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에게 밤새 실려 달라고 빌었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는 바위였고 그 밑에는 산삼이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43년 국도가 되어 6차선 도로로 변해버린 축석고개. 효자에게 산삼을 준 바위는 축석 검문소 앞 공원으로 옮겨져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자동차마다 네비게이션까지 있으니 길 잃을 염려도 없다. 산삼을 구하고 목숨을 애걸하던 그때 그 효자처럼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구해본 적이 있던가.

축석고개를 넘어 광릉내 길로 들어섰다. 구불구불운치 있는 길이 한참을 이어진다. 광릉수목원 즈음을 지날 무렵, 하늘에서 굽은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름 벌의 폭정에 힘없이 대지를 떠난 수분이 꾸역꾸역 하늘에 갇혀 구름으로 해를 가리고, 급기야 성난 적란운이 되어 양동으로 퍼붓듯 굽은 물줄기를 퍼붓는 것이리라. 쏟아지는 빗 속을 자동차 와이퍼만 들쭉 모르는 어린애가 손 흔드는 마냥 움직여댄다.

봉선사에 도착해 밀운 스님(봉선사 회주·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이 계신 곳을 찾았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른다. 스님이 계신 곳은 '피우정(避雨亭)'. 비를 피하는 곳이다.

밀운 스님의 거처에는 행초서로 적힌 액자가 여럿 있다. 선교를 두루 견수하며 박학(博學)하기로 소문난 스님이 손수 지은 선시(禪詩)다. 스님에게 삼배의 예를 올린 객이 그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부목사시거피우정(負木捨柴寄避雨亭) 불관풍뢰개안수면(不關風雷開眼睡)이라. 부목이 뿔나무를 버리고, 이 정자에서 비를 피하려네. 태풍과 뇌성벽력도 상관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잠에 들리라.

밀운 스님이 피우정에서 집거를 시작할 때 지은 시다. 부목은 절에서 뿔나무 등을 하는 일꾼을 말한다. '종단의 부목'을 자처하는 스님은 크고 작은 수많은 일을 해왔다. 서울 봉은사 땅 2만여 평을 찾아 삼보장재를 지켜냈고, 총무원 부원장 소임 때는 경승단과 승가대학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외에도 50여 년간 수행자로 살며 굶주림과 불사를 적혀 해냈다.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영암 스님은 총무 소임을 살던 밀운 스님이 불가능해보였던 옛 봉은사 터를 되찾는 것을 보고 "허공에 눈을 질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런 스님(부목)이 뿔감을 버렸다니. 밀운 스님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번 생 자체가 피우정"이라며 "부목이 뿔나무를 버렸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사람 사람의 번뇌와 시시비비 따위에 물들지 않고, 그대로 중생과 세상을 훤히 꿰뚫어 보는 지혜와 광명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스님(부목)이 버린 것은 뿔감이 아니라 번뇌였다. '피우정'은 밀운 스님이 몸담은 작은 전각이지만 중

를 너무 많이 많았나보다. 객이 스님의 말씀에 중얼 중얼 토를 달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지만 망상 일으키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와 조사의 본성이예요. 본래 우리 본성은 청정한데 오염된 한 생각을 일으켜 망상이 된 것이라. 우리 마음이 본래는 청정한데 번뇌 망상에 가려져 있다고 들 말하지만 본래 가려진 것도 없습디다. 번뇌 망상도 다 청정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예요. 중생이 망상을 일으키기 전 그것이 바로 '나'이고 이것이 바로 불성(佛性)이고 자성(自性)입니다."

그렇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었다. 밀운 스님은 1934년 황해도 연백에서 4대 독자로 출생했다. 4대독자가 출가한다면 보통 집안에서는 어렵 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스님은 불심 깊은 부모

'종단의 부목' 자처... 경승단·승가대학 설립에 중추역
뿔감 버리고 비 피하는 정자에 칩거... "눈 뜨고 잠들겠다"
"스님은 게 지키며 살아야하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생의 견지에서 보면 우주 전체가 곧 피우정이다. 바람과 태풍은 대중들의 분노와 질시다. 스님은 1980년대 말 모든 공직을 놓으며, 그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었다. 눈을 뜨고 잠에 들겠다는 말은 항상 깨어있으며 평정을 잃지 않겠다는 서원이었다.

'피우정'은 단지 비를 피하는 곳이 아니라, 어리석은 상(相)의 겹질(波愚)을 벗어내는 깨침의 공간이었다.

스님은 "무량공안불조망어(無量公案佛祖妄語) 중생망상불조본성(衆生妄想佛祖本性)이라. 부처와 조사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요, 중생이 일으킨 망상이 바로 부처와 조사의 본성이라는 뜻"이라고 소개했다.

알 것 같다. 부처와 조사의 모습이 상(相)인데, 하물며 말이라고 다를까. 하지만 중생의 망상이 부처의 본성과 같다는 스님의 설명에는 뭔가 의심이 남는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연꽃을 들어 보인 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고, 가섭 존자가 그 꽃을 보고 웃었는데 그 웃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왜 연꽃을 들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가섭존자가 왜 웃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피우정에 들어 비를 피하기는 했는데, 오기까지 비

덕에 출가할 수 있었다. 집근처 망해사에서 기도 끝에 스님을 낳은 이유도 있었다.

밀운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남달랐다"면서 "어릴 적 방학이면 망해사 스님에게 한문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때였다. 스님은 1·4후퇴 이후 고향 황해를 떠나 강화로 피난을 나왔다. 친척을 따라 서울 노량진에서 살던 밀운 스님은 은사 대오 스님이 "스님이나 한번 해봐라"하는 말에 출가를 했다. 법명은 부림(郁林). 스님 나이 열아홉살 때였다.

영주 초암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다. 은사스님은 행자였던 밀운 스님에게 밥상까지 손수 들여다주며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을 만큼 정성을 쏟았다.

대오 스님은 검소함을 강조하던 선방 수좌였다. 밀운 스님은 "은사스님은 늘 참선과 욕심 없는 삶을 강조했다"며 "입적했을 때 가위, 돌보기, 실타래, 손톱 깎기가 전부였을 정도로 올곧은 수행자였다"고 회고했다.

이후 스님은 봉선사 운허 스님에게 건당했다. 건당은 계를 준 은사가 아닌 다른 스님의 제자로 입적하는 것. 운허 스님은 일생을 팔관대장경 한글 번역에 매진했던 근현대의 대강백이다. 현재 봉선사 조실인 사형 월운 스님이 스승에게 밀운 스님을 추천하면서 건당제자가 됐다. 운허 스님이 지어준 '밀운(密耘)



이란 법명은 평소 스님의 남모르는(密) 수행정진(愼) 때문이었다.

1954년 밀운 스님은 군에 입대했다. 의무병이었던 스님은 군에서도 계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저녁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참선을 했다. 어느 날 은사스님과 후일 총무원장을 지낸 동암 스님이 면회를 왔다. 다음날 포천 동화사 법당에 다녀오면서 동암 스님이 "부처님이 시원찮은"라는 말을 했다.

밀운 스님은 "부처 중에도 시원찮은 부처가 따로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의문을 붙잡고 정진했다. 그 의문이 화두가 됐던 것이다.

스님은 "1700공안, 큰스님에게 받는 화두만이 전부 아니다. 내가 의심을 가진 화두가 돼야 진짜 화두가 되고, 오매일여가 된다"고 강조했다.

보름쯤 지났을까? 스님은 무릎을 탁 쳤다. 그리고 한 생각을 얻었다. '부처행을 하면 모두가 부처(佛行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괘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인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관계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안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02) 3667-4446
010-3813-4443